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96호

Tuesday, September 10, 2024 A

“미국도 ‘정치검사’ 판친다”... 대선 앞두고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 검사가 민주당에 수차례 정치자금 기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연방법무부의 일부 정치검사가 민주당에 유착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편향적인 결론을 내릴까 우려했다. FBI와 연방법무부 고위 관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거쳤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인물은 제이 브래트(사진). 그는 연방법무부 국가보안국 산하 방첩및정보유출통제과 과장이었다. 그는 사실상 연방법무부의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유출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브랜디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 로스쿨 출신으로 연방법무부 엘리

트럼프 수사 검사가 민주당 정치자금 기부
FBI-연방법무부 신경전 “법적 문제는 없어”

트 그룹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FBI는 그가 수차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인물로 수사 지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스닷컴에 따르면 브래트는 2007년 오레곤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경선에 도전한 자신의 동료에게 600달러를 기부했다. 이밖에도 1993년과 1994년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500달러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 기부했다.

연방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으며 정치자금 기부에도 제한이 없다. 연방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브래트 과장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면서 “그는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국무부 장관의 기밀 유



출 사건을 다룰 때도 아무런 편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티븐 다투오노 전 FBI 워싱턴지부장은 “브래트 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 첫날부터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면서 “검사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흔치않은 기회를 통해 뭔가 다른 야망을 꿈꿨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형식적으로 연방법무부 장관이 FBI를 관장하지만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대립 관계로 작용하며 1960년대에는 FBI 국장이 오히려 연방법무부 장관을 능가하는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법무부와 FBI의 해묵은 갈등이 정치적 이념 싸움 형태로 재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들 부시 행정부 이후 양당의 이념적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두 권력기관 내부에도 친민주당과 친공화당 성향 인사 간에 치열한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를 놓고 서로간에 충성경쟁 베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정권에 따라 인사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김주석 기자

자각한 아시안 유권자 43% 급증

지난 4년 동안 아태계 등록 유권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아태계 신규 등록 유권자가 총 55만68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6월 4일 기준) 총 78만7982명을 기록했다. NBC 뉴스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같은 기간 백인이나 흑인계 유권자의 등록 증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매체는 이와 같은 수적 변화에 2020년에 있었던 정권 교체와 이후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성 대형 사건 사고 등이 미국 사회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태계 주민들의 자각 현상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했다.

표심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태계 리더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1996년과 2008년 이후 최대 수치로 기록됐다.

최인성 기자

▶ 4면 '아시안'으로 이어집니다

한인 중학생들 동급생 몸캠사진 유포

지난 5월 발생, 피해자도 한인
쉬쉬하다 학교 측 뒤늦게 조치
경찰 신고... “자세히 공개 못해”

한인 학생이 다수인 LA한인타운 인근 한 중학교에서 ‘몸캠’ 피해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인 학부모와 존 버로우 중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시 이 중학교 8학년이던 한인 A학생(남)과 B학생(여)이 C학생(남)의 몸캠 사진을 친구들 소셜 미디어에 유포하거나 직접 보여준 사실이 발각됐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인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실이 일부 학부모에게까지 알려졌지만, 학교 평판과 흑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후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에서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3~4월쯤 한인 A학생과 B학생은 친구인 다른 한인 C학생을 노렸다고 한다. B학생은 C학생에게 셀폰 문자 등으로 이야기를 걸며 신체촬영을 요구했고, C학생은 자신의 몸 일부를 찍어 셀폰으로 B학생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이 학부모는 “B학생을 통해 C학생의 사진을 받은 A학생은 친구들 소셜 미디어에 유포했고, B학생은 셀폰에

있는 C학생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며 “C학생이 전송한 사진에는 일부 신체 주요부위도 얼굴과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A학생과 B학생이 C학생 몸캠 사진을 유포하고 다니자 일부 학생은 C학생에게 부모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C학생은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몸캠 피해사례를 인지한 존 버로우 중학교 측은 C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버로우 중학교 측은 관련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 4면 '몸캠사진'으로 계속 김형재 기자



애플도 AI시대 진입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 공개했다.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이제 새롭게 빛나다' (It's Glowtime)를 열고 아이폰16 시리즈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다. 사진에서 팀 쿡 CEO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급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물받지 팔기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한달 버티면 시효 끝... '선거법 리스크' 여의도 지형 바꾸나

내달 10일 총선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30명 기소설 나와
야당 "용산이 수사로 견제" 주장
일부선 '시효 뒤 여권 분열설'
친한 내부선 당정관계 균형 기대



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 합쳐 10명을 훌쩍 넘는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8월 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처리된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혐의자는 모두 2348명이다. 이 중 10%가량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은 수사 중이다. 민주당에선 양문석·김문수·박규태·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연주·이정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

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기소되는 의원은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인에게 공포 그 자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선거 사범에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가 뼈격대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의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흔들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이어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게 되면 민주당의 위세가 약해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로는 용산에서 선거법 위반 등 많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을 20명 이

상 날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분열설'도 있다. 윤-한 갈등에 주목한 시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다들 감사의 칼끝에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10월 10일 이후엔)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권 분열설'을 국민의힘은 "뇌피셜"(김종혁 최고위원)이라지만, 일각에는 다른 기대도 있다. 지난 4일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예산에 의원들 이해가 달려 있어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시기, 의원들이 말 못하는 시기가 좀 정리돼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균형적인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작 6개월 뒤늦게 범죄 드러나도 처벌 못해

국회 법개정 안해... '특권 과도' 지적
미국·독일은 5년 공소시효 적용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처리된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된 현역 의원도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단순 폭행죄(5년)보다도 훨씬 짧은 공소시효는 선거 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탓에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는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때 들어왔다. 그사이 선거법은 104차례 개정됐지

만 이 제도는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개정 의견에 국회 가늠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도 '공소시효 6개월-1년 연장'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관련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2011년)도 여야는 무관심했다.

독일에선 5년 또는 3년이고, 미국도 다른 범죄와 같은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일본도 1962년 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를 폐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사범 특례가 30년째 그대로인 것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민주당 최고위서도 '금투세 유예론'... 한동훈은 "토론회 하자"

이소영 "의견 밝혀달라" 표명 후
이연주·이연희·전용기도 "유예론"
여당 "금투세는 이재명세" 공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품살을 앓고 있다. 당에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거나 "유예하자"는 공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금투세 재검토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의 양도 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원 초과 시 27.5%)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금투세 완화론을 꺼내긴 했지만,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당내에서 유예론에 동조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 이제는 공개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면서 불이 붙었다. 9일엔 이연주 최고위원 외에도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이연희), "금투세는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전용기) 등 친명계 의원들도 유예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최근 불안해진 주식시장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민주당 비판 여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

은 통화에서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설 문자가 연일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짠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원칙론을 고수 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제가 먹은 욕은 먹어야겠지만,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민심"이라며 "민주당에서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한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워싱턴 날씨 (°F)

11일(수)	85-62	14일(토)	84-64
12일(목)	82-64	15일(일)	83-65
13일(금)	82-65	16일(월)	81-64

9월 10일(화) 84~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SOLD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시어즈 VA 부지사, 주지사 출마 선언

공화당 소속 원섬 얼-시어즈(59) 버지니아 부지사가 오는 2025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어즈 부지사는 버지니아 비치에서 가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까운 미래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어즈 부지사가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 기록을 갖게 된다.

시어즈 부지사는 지난 2021년 선거에서 승리해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버지니아는 주지사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글렌 영건 주지사는 재출마할 수 없다.

시어즈 부지사 측 핵심 관계자들은 “그녀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 충성도가 가장 높은 흑인 여성 유권자 계층의 균형을 가함으로써 버지니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가에서는 그가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에 이민와서 귀화한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6세대 미국으로 이민과 뉴욕 브루클스 등에서 성장해 이민 1.5세라는 정체성

민주당 핵심지지계층 흑인여성-이민자 표 잠식



원섬 시어즈 부지사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을 지니고 있으며 이민1세대와 2세대를 이우르는 표 결집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시어즈 부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공화당 주류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오히려 민주당 중도 성향 유권자 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자서전에 따르면, 시어즈 부지사는 1964년 태어나 해병대(1983-1986년)에서 전기공병으로 복무한 후, 버지니아 타이드워터 커뮤니티 칼리지와 올드 도미니언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제90선거구 버지니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 10선의 민주당 의원 빌리 로빈슨

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는 여성 군인과 귀화 이민자 최초의 주하원의원 기록이다. 이후 시어즈 부지사는 2021년 공화당 부지사 경선에서 팀 휴고 전 하원의원을 54%대46%로 크게 이기고 본선에서도 승리해 버지니아 최초의 흑인 여성 부지사와 이민자 출신 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편 한인사회에 자주 모습을 비추고 있는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도 출마가능성을 열어두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예비게일 스펀 버거 연방하원의원(제7선거구)이 일찌감치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했다.

박세용 기자

조현동 대사, 고든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남

조현동 대사가 필립 고든 백악관 해리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남을 갖고,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대사는 이 자리에서 고든 보좌관과 한미일 3국 협력, 중동 등 지역 안보, 경제통상, 핵심신기술, 우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한미 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앞으로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보좌하며 지난 2022년 9월 방한시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화상에도 참석한 고든 보



조현동 대사가 필립 고든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좌관은 “한반도의 안보현실은 물론 한국의 첨단 핵심신기술 경쟁력 등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9월은 패혈증 자각의 달”

연간 170만명 감염, 35만명 사망

연방당국이 9월을 패혈증(Sepsis) 자각의 달로 지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170만명이 패혈증 진단을 받으며 이중 35만명 이상이 사망한다. 쉐론 오브라이언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 병원 교수는 “패혈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지만, 미국인의 80%가 패혈증 증상을 구분할 수 없다”고 전했다.

패혈증은 폐렴 등 중증 질환 뿐만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상처, 소변 줄기 등의 감염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인체 내

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각종 인체 장기와 조직 등을 괴멸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면역반응으로 패혈증이 시작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해 이로 인한 패혈증 진단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학계에서는 패혈증 영어 단어 SEPSIS를 통해 증상을 홍보하고 있다. S는 심한 오한과 발열(shivering, fever, or very cold), E는 극심한 통증과 불쾌함(extreme pain or



discomfort), P는 창백하고 변색되며 차갑고 축축한 피부 느낌(pale, discolored, clammy or sweaty skin), S는 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sleepy, confused or disoriented), I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feel like I might die), S는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등이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패혈증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질병이지만, 특히 면역기능이 떨어진 65세 이상 고령자와 최근 입원했거나 수술을 받았던 사람, 당뇨 및 신장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종이마을 한국학교 가을 학기 개학식

워싱턴제일장로교회 소재 종이마을 한국학교(교장 김명희)가 24-25학년도 개학식을 가졌다.

5일 열린 개학식에서 김명희 교장은 올 여름 한국에서 국립통일교육원의 지원과 세계종이접기연합회의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재외동포 글로벌 가족 캠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학생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돼서 북한 친구들과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기도한다”고 했다.

2014년 11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종이마을 한국학교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

며, 앞으로 이어갈 보다 새롭고 활발한 10년을 향해 실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한타치기, ‘나의 한국어 공책’ 작성, ‘두루책방’ 책읽기, 듀오링고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개학식에서는 지난 학년도에 종이접기 급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급수 수여식과 자원봉사 학생과 교사들의 대통령 봉사상 수상식, NAKS 차세대 리더상 수상식이 있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Zespri KIWIFRUIT

즐거운 추석 행복하게 보내세요!

썬골드 키위 하나에 비타민C

하루 권장량 100%

가까운 마켓에서 찾으세요.

LA판 더 글로리, 이젠 반응 총돌

‘학폭 얘기 이제 그만’ 조회 1위
‘싫으면 클릭 마’ 반발 댓글 300개

‘LA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토렌스 학교폭력 사건(본지 9월 3일 A-1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오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지하며, 가해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사건이 잊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일 본지에 “격정이 많았는데 왜곡 없이 기사가 나가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파티 사건은 우리를 납치하고 감금, 폭행한 후 이를 그들만의 ‘졸업파티’라고 불렀던 것”이라며, “이것은 졸업을 축하하는 계획된 행사였고, 졸업 약 한 달 전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게시된 ‘토렌스 학폭 얘기,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 날 조회순위 1위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매일 도배를 한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반발하며 300개 가까운 댓글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싫으면 클릭하지 마라”, “그럴 만하니까 한다”, “학폭에 동조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또한 ‘미시USA’의 ‘속풀이’란에 학폭 이야기가 넘쳐나 제대로 글을 올릴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가해자 측에서 의미 없는 글을 올려 사건을 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폭 관련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게시물이나 댓글에 ‘토렌스 학폭’을 덧붙이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집단광기나 강요로 보인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건이 잊혀질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이 묻히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손님이 끊겨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척의 지인 A씨는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오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다. 가해자의 행동과 무관한 친척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본지에 전했다. 장수기자

65세에도 추방 위험 애타는 한인 입양인

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 LA로 입양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면 최소한 주정부 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밀리 워네키는 그것이 ‘주정부 사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수십 년 전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은퇴 후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미국뉴스의 5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네키는 5살이던 64년 미국에 왔다. 6명의 형제자매 속에 그는 ‘미국인의 자긍심’과 ‘군인의 딸’임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17살에 만난 남편은 또 다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그에게 남겼다.

그에게는 84년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는 당시 남편이 강요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새롭게 알게 됐다.

가족과 함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

5살 때 LA로 입양된 워네키
학대 남편 강요에 전과 기록
사면 받아야 시민권 신청
탄원에도 가주정부 무응답



2000년 아동 시민권법에서 소급 적용이 안 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의 현실을 다룬 독립영화 ‘푸른호수’ [사진=부산국제영화제]

며 연방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워네키에게는 본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가 다된 나이에도 여전히 추방 위험은 남아있다.

석방 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곧 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선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 전과를 주지사가 사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으니 주정부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 추천 명은 ‘입양아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주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사면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뉴스 점 주지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 1면 ‘아시아’에서 이어집니다

매체는 이들 이민자들은 오랜 시간 미국 체류를 해왔으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민권 취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1면 ‘몸캠사진’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4일 본지가 공식입장을 문의하자 이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 전 모두 졸업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건은 LA통합교육구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들 사이에서 몸캠요구 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사진 공유 사건이 계속되고 있

석했다.

등록 유권자 연령대로 보면 10~30대와 50~70대가 등록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태계 2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등록에 관심을 보인 것에 더해 청장년이 되

어 시민권 취득 후 곧바로 유권자 등록에 나서는 트렌드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늘어난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최인성 기자



샌버나디노 ‘라인 파이어’ 확산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 시작된 ‘라인 파이어’가 1만7000에이커를 태우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만5000여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관들은 폭염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산불이 주택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KTLA방송 화면 캡처]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대선 목전에 정부 섰다운? 민주·공화 임시예산안 이견

미국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섰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 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도 올해는 양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불리한 섰다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공개했다.

임시예산안은 10월 1일 이후에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법안을 연계했다.

이 법안은 투표하려고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비(非)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정부 섰다운을 막는데 필요한 것은 초당파주의이지 한 정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임시예산

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양당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은 극단적인 정책과 해로운 수 있는 장기 임시예산안으로 다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이 작년 강경파의 반발에 따른 내부 분란을 수습하지 못한 탓에 몇차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예산안(2023년 10월~2024년 9월)을 올해 3월어야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임시예

산안이 길면 길수록 정부 운영에 차질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 기한에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예산안은 내년 3월 28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았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취임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안에 그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과 일부 하원 공화당 증진은 임시예산안을 11월 대선 직후까지만 편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는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예산안을 협상할 수 있고,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WP는 시민권 입증 법안을 철회하되 공화당이 제시한 6개월 기한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느냐에 따라 임시예산안 기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레이더조 미니 토트백 입고

9월 18일부터 재판매 시작

트레이더조가 사채기 열풍을 일으킨 미니 토트백을 재판매한다.



최근 CNBC 방송에 따르면 트레이더조가 지난 3월 처음 선보인 미니 캔버스 토트백(사진)을 오는 18일부터 재판매한다. 1개당 2.99달러인 토트백은 첫 판매 당시 7일 만에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이로 인해 업체는 1인당 구매 개수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조기 동나면서 미니 토트백 1세트(4개입)는 이베이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499.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기준 이베이에 리스팅된 옐로우 색상 미니 토트백 1개의 판매가는 23.99달러였다.

이 토트백은 네이비, 옐로우, 레드, 그린 등 4가지 색상이며, 한정판매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판매기한과 재고 물량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소비자들은 토트백을 빈 캔버스로 활용하는 등 미적 감각을 뽐내기도 했다. 리본, 핀 등 갖가지 장신구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캔버스 소재 특성을 활용해 자수를 놓기도 했다. 사재선기자

중고차값 하락에도 구매 서두르지 마라

재정 전문가 투자 측면 주장 고이자율에 가격 추가 하락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중고차 구매를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을 끌고 있다.

금융정보사이트 고뱅캐리츠가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발표한 올해 중고차를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부담되는 오토론

자동차 전문매체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토론 평균 이자율이 신차는 7.1%, 중고차는 11.4%를 기

록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밝힌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기관들의 평균 중고차 오토론 이자율은 16.96%에 달했다. 오토론이 5년 전보다 일반적으로 68%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앤드루 라탐 수퍼머니 공인재무설계사는 "지난 20년간 이렇게 높은 오토론 이자율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자율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이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탐은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금융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중고차 구매를 미루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현재 보유한 자동차로 더 버틸 수 있다면 적어도 내년까지 유지해 더 저렴한 오토론과 차 가격을 활용하는 편이 권장된다.

▶높지만 내려가는 차값

중고차 가격이 지난 2021년 36% 급등한 이후 지난해에 걸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중고차 및 트럭 가격이 10.9% 떨어져 다른 주요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카넷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고차 평균가격이 2만5571달러였으나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신차 물량 및 인센티브 확대

신차 인벤토리가 지난해 급증하면서 딜러들이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중고차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폭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인벤토리가 291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53% 급증했다. 신차 가격도 1%가량 내린 데다가 딜러들이 캐시백 경쟁을 펼치면서 인센티브가 지난달 평균 3383달러로 신차 가격의 7%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9.1% 늘었다. 딜러들이 재고 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보다 좋은 조건에 신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

▶투자 측면에서 불리

재무자산관리업체 리드웰스의 재무설계사 스티븐은 "자동차 구매는 일반적으로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사용하는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매 비용, 손실 가치, 보험료, 주유비, 유지비로 지출하는 돈을 투자 또는 기타 멋진 경험에 쓸 수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주행당 마일 기준으로 훨씬 더 비싸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관련해 지출하는 모든 돈은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을 빼앗아가는 셈이다.

글:사진·박낙희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퓏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허니문 약발 떨어진 해리스, 트럼프 쇼맨십 누를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TV토론 맞장 대결로 중차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까지 세 차례 대선을 치르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국가 지도자로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에서 그가 능력과 비전을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 이번 TV 토론 결과는 초박빙 대결 구도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외신들의 진단이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토론 무대에 서게 되는 셈이다.

CNN 방송은 9일 "유권자들의 마음속엔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맡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며 "해리스에게 있어서 이번 토론은 그것을 보

여줘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짚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두 후보 측 모두 이번 대결이 올해 대선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깜짝' 대선 후보가 된 만큼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통령 재임 기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최근 들어 여러 정책에서 입장을 뒤집은 우클릭 행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격 포인트로 꼽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행정부 실정의 공동 책임자로 묶는 방식의 공격 전



략을 펼치는 구상이어서 이같은 공세를 어떻게 넘길지 역시 관건이다.

검사 출신의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대 피고인'의 프레임이 부각,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붙인다는 구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송곳 질의로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민주

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과거 '버싱'(busing-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공부하도록 버스로 흑인 학생을 백인 학교로 실어나르던 정책)을 반대하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협력했던 이력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거론하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일격을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콘텐츠 면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여전히 의문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토론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기도 하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는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8%)과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거나 1~2%포인트

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낙점되면서 빠르게 상승세를 타는 듯했지만 '대역전'을 이룰 만큼의 추동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표심 흐름은 해리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NYT-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응답 유권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응답자(9%) 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정치 전략가 에이미 월터는 "트럼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신 가장 큰 관건은 그것(토론)이 해리스를 인식하는 유권자들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라고 짚었다.

모건스탠리 또 4분기 유가 전망 하향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심화하자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불과 몇 주 만에 유가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마르틴 로스 애널리스트 등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유 공급은 풍부한 반면 수요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올해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평균 75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에도 4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이전 85달러에서 80달러로 낮춘 바 있다. 내년 분기별 유가 전망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브렌트유는 최근 중국 수요 약세와 미국 경기 둔화 신호와 맞물리면서 2021년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주에만 10%가량 급락해 11개월 만에 주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 및 비OPEC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 플러스(OPEC+)는 자체 감산량을 줄이려던 계획을 연말까지 연기했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흐름은 상당한 수요 약세가 있었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경기침체 때처럼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행위 초기 조사...소환장은 안보내

최근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소식과 관련, 초기 조사는 시작됐으나 소환장은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연락해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의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부인했다. 이 소식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거린 바 있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함께 맡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기업이 되기까지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 소유주 알파벳의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경쟁사보다 특별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런 비판은 정부가 공격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줬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튀르키예 8세 여아 시신으로

튀르키예에서 8세 여아가 실종돼 당국이 대대적 수색에 나섰다. 1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부모와 오빠 등 일가족이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여명을 체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주지사 무라트 줄루오글루는 지난달 21일 실종된 나린 귀란(8)의 시신이 8일(현지시간) 집에서 1.5km 떨어진 강바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돌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줄루오글루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앞서 여덟 차례 수색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나린 귀란 [엑스(X-넷 트위터) 캡처]

수사당국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까지 모두 21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는 귀란의 부모와 오빠, 삼촌이 포함돼 있다. 오빠의 팔에서 물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귀란의 치아 자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가족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하지만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해리스 지지율 82%...바이든 때보다 꺾춤

흑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끌어모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흑인 등록유권자 약 1천명을 조사한 결과, 82%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투표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흑인의 87%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것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13%였다.

올해 대선에서 환표를 행사하겠다는 흑인 유권자도 4월 62%에서 8월 69%로 뛰어올랐다.

세인트루이스주 변호사라는 틸드레미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공격에 마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센터빌
첼들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 할인+

★세일기간★
9/1~9/31까지
선착순 한정세일

여성의류

50% OFF

COUPON

겨울이불

50% OFF

COUPON

잠옷, 내복, 모자, 가방, 강아지옷

20% OFF

COUPON

시즌이불

20% OFF

COUPON



깊이가 다른
1도 제어기술!

혜택이 가득한 가을 세일 이벤트

숙면, 기술을 써!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매트
10% off!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쾌적 숙면 가전/무전자파/1mm 초슬림매트/분리난방/보조난방,
숙면모드/살균모드/다중안전장치/차일드락/타이머 등등

카본매트
20% off!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쾌적 숙면 가전/직류 저전압/전자파 안심/
분리난방/Wi-Fi/스마트히팅케어/슬립케어
시스템/원격외선/이지워셔블/다중안전시스템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공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 하하핑크 옆

영업시간
9:30am ~ 8pm
(365일)

“종교 없어도 영적인 것 추구하는 일에는 관심”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

종교인과 무종교인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탈종교화와 맞물리면서 종교로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가 점차 소수화되면서 종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한국은 더 이상 종교 사회가 아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내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19세 이상 종교인은 37.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무종교인은 최고치인 62.9%로 조사됐다. 두 집단 간 격차는 무려 25%p 이상이다. 지난 2017년 당시 격차(6.8%p)보다 더욱 벌어졌다.

무종교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도 그들과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 보고서를 분석해봤다.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냉랭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종교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종교’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무종교인 5명 중 4명(83%)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또는 별로 없다’고 답했다.

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가끔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매우 또는 약간 비종교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9%에 달했다. ‘종교적이지도, 비종교적이지도 않다’고 응답자(36%)까지 합하면 대다수가 종교성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년 전부터 종교사회학계에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현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종교는 없어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는 관심 있는 세태를 보여준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이번에 진행한 조사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무종교인 4명 중 1명(24%)은 자신을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응답이 종교에 대한 관심도(16%)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대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는



무종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교인과 괴리는 더욱 커진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무종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한인 교회에서 비교인 전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탈종교 현상과 맞물리면서 무종교인 계속 증가 추세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 4명 중 1명 ‘난 영적인 사람’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인정 무속, 미신 의존하는 경향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종교와 진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무종교인 응답자의 59%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답했다.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27%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무종교인들은 종교 다원주의적 견해가 가장 강했다”며 “오직 한 종교에만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에 그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종교인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무종교인 응답자의 57%는 ‘우리 사회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64%), 40대(59%), 50대(57%), 30대(55%), 20대(52%) 등의 순으로 종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종교인 응답자(중복응답 가능)들은 가장 먼저 ‘소속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역할(75%)’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웃 사랑 실천(57%)’ ‘가치관 변화(53%)’ ‘공공의 선 추구(43%)’ ‘도덕적 수준 제고(42%)’ 등을 꼽았다.

종교가 주는 유익은 ‘위안과 위로(76%)’ ‘내적 평화와 행복(73%)’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66%)’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34%)’ ‘영생·해탈 추구(27%)’ 등의 순이다.

보고서에는 “무종교인들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삶의 의미나 영생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며 “종교의 역할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회적 이슈인 외로움, 고독

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종교인의 절반 정도는 ‘사주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47%)’고 인식했다. 또 ‘부적은 때때로 행운을 가져다준다(29%)’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27%)’ ‘태어난 해의 별자리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24%)’ 등 무속 또는 미신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는 젊은층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적이 때때로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4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32%), 40대(26%), 50대(21%) 등의 순이다. 또, ‘점쟁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기는 연령대도 20대(35%)에서 가장 많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무속, 미신 행위 경험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재미로’ 봤다는 응답이 57%, 가장 많이 본 건 신년 운세(52%)였다”며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무종교인들은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초월적 힘’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편이었다.

먼저, 무종교인 5명 중 3명(60%)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답변을 세분화해보면 이중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초월적인 힘이 존재함을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달했다. 반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초월적인 힘도 안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였다.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쳤다.

무종교인 중 71%의 응답자는 평소 종교적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 무엇인가를 하는 무종교인들 중에는 ‘명상 또는 마음 수련(19%)’ ‘요가(8%)’ ‘기도(6%)’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상, 마음 수련, 요가 등을 하는 무종교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바라는지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음(89%)’ ‘위로 또는 위안을 얻음(78%)’ ‘삶의 의미를 깨달음(4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무종교인들이 명상 등을 통해 얻는 유익을 분석한 결과 ‘삶의 의미’ ‘가치관의 변화’ 등 종교의 본질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편”이라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88%에 달했다”고 전했다. 정열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 화장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 화장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장2.5/ 차고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 화장3.5/ 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열집 중 네집이 '나 혼삶' 평생 한번은 혼자사는 시대

대한민국 혼삶 탐구보고서

8월 1인가구 1009만, 전체의 42% 4050은 기러기생활·이혼 등 많아 6070선 병원 근처 실버타운 선호

대한민국에서 '혼삶(혼자 사는 삶)'은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일이 됐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 총조사 기준 1인 가구는 782만9035 가구로, 전체 2207만 가구의 35.5%다. 이른바 '정상 가구'라던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712만1007가구·32.3%)보다 1인 가구가 훨씬 많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인 가구(세대)는 올해 3월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지난달 기준 1009만7800 가구로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42%다. 열집 중 네집이 혼삶인 셈이다.

혼삶은 청년·중장년·노년 등 세대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증가세다. 연령별 1인 가구는 60~70대가 38.7%로 가장 많았고, 39세 이하가 29.5%로 뒤를 잇는다. 40~50대는 28.9%다. 이는 결혼·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젊은 층이 증가한 데다, 기대수명 증가 및 핵가족화로 사별 뒤 혼자사는 노령층이 늘어난 데 따른 사회 현상이다. 또 이혼과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돌싱(돌아온 싱글)' '기러기'(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등 혼삶의 양태도 다양해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게

주류가 됐다"며 "거대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 연구·실행 등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삶을 삶의 질 기준으로 뜯어보면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혼삶족(혼자 사는 사람)을 생애주기별로 심층 인터뷰했다. 특히 세대별 1인 가구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안전망 등 측면에서 처한 환경에 큰 차이가 났다.

20대는 대부분 월세(63%)를 내고 산다. 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다수여서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이들은 '잔테크(절약해서 돈을 모으는 것)를 하면

서도 삶을 누리려는 특징을 보인다. 취업준비생 이다민(25)씨는 "하루 1만원 살기"를 해 모은 돈으로 친구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3040 혼삶족도 급증세다. N잡러·중소득·고소비가 이들의 키워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수입은 365만원, 평균지출은 270만원. 월수입의 약 73%를 소비한다. 직장인 석민정(36)씨는 "당장 결혼 생각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8평 원룸에 산다"며 "지출이 많아 부업으로 동네에서 자전거 배달일을 할지 고

민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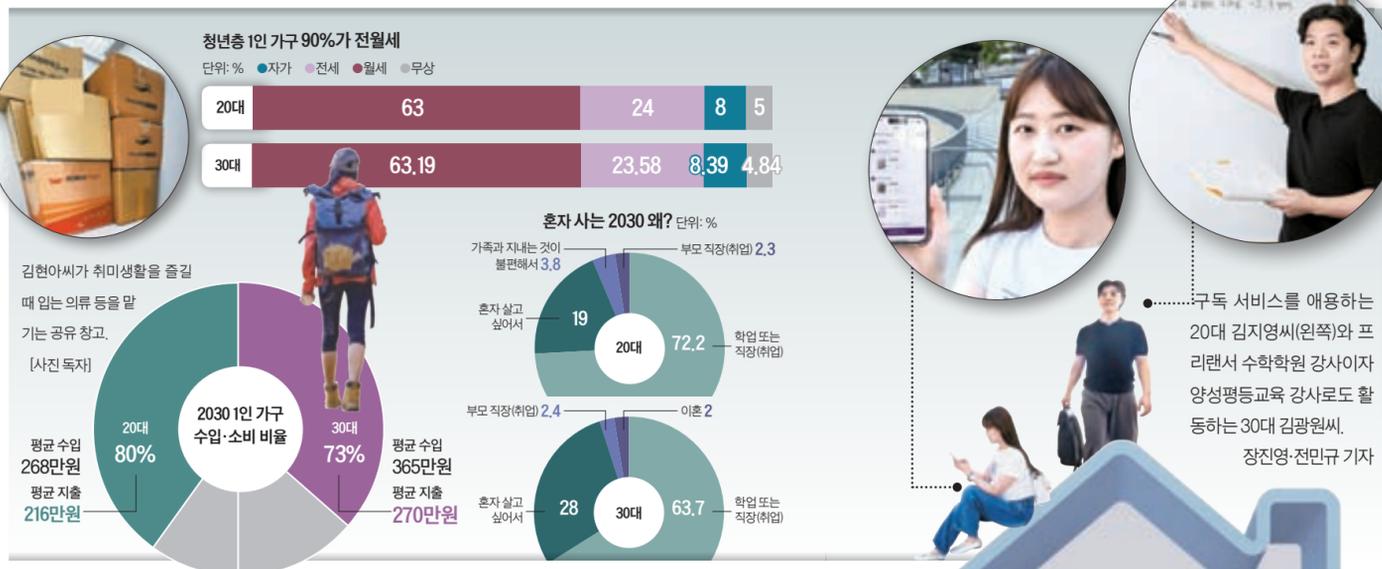
4050 혼삶족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정서적 위함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가 이혼과 '기러기' 생활, 원거리 직장 등을 이유로 혼자 산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혼자 사는 이유 중 '직장(또는 학업)'인 40, 50대는 각각 32.2%, 12.2%, '이혼'은 12.9%, 30%였다. 울산의 석유화학기업에 다니는 임형석(48)씨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살 게 없어도 일부러 마트에 갈 때가 있다"며 "배달이 편하지만, 퇴근 후 고립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6070 혼삶족은 대개 배우자와 사별

또는 결혼한 경우다. 노년 혼삶족의 실버타운으로 역세권이나 병세권(의료 시설과 가까운 곳)이 뜨고 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 수준별 삶의 질 격차가 가장 큰 특성도 보인다.

생애주기별로 각양각색인 혼삶족에 맞춰 세분화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그간(혼삶족 정책)은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대부분이었다"며 "다양해진 혼자 사는 삶의 형태를 분석해 전문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윤채·신혜연·김서원 기자



'20대 나 혼삶' ... 잔테크로 생계비 마련, 집도 창고도 공유

(짜다+재테크)

'학업·취업 준비' 20대 1인 가구 공유 창고 빌리고 생필품 공동구매 전월세 살아도 취미·가전엔 안 아껴 '원하는 삶 위해 목적성 소비 경향'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현아(25)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창고'를 이용하고 있다. 지인과 비용을 나눠 내고 공간을 빌려 취미생활 즐길 때 입는 의류 등을 맡긴다. 혼자 사는 집에 짐을 둘 수도 있지만 짐이 너무 많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적정 온·습도를 갖춘 환경에서 옷을 보관할 수 있고, 집 위생 상태에도 좋을 것 같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29세 이하인 20대 1인 가구 대부분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혼삶(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 대부분이 월세(63%) 방식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연립·고시원·기숙사 등 원룸형 공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공간·비용 절

약을 위해 이 같은 '공유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수입이 적고 주거 면적도 작지만,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취미생활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산 뒤 따로 창고 공간을 대여해 보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굿즈 등을 모으는 A씨는 "방이 (집) 상자에 지배당해 공유 창고를 빌렸다"고 말했다. 부피가 큰 캠핑용품들을 지하철역 안 공공 사물함에 모아두는 20대 캠핑족도 있다.

이런 젊은 혼삶족에선 여행·취미 등에 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 생계비를 쥐어 짜는 '잔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 전략이다. 잔테크는 '짜다+재테크'의 합성어로,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걸 뜻한다. 전북 전주에서 자취하는 대구 출신 대학생 최모(21)씨는 인근에 사는 다른 자취생들과 물티슈·화장지 등 생필품을 대량 공동 구매해

나눠 쓴다. 또 식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 대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으로만 식사한다. 최씨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달 용돈 50만원 중 절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전·월세집을 원하는 인테리어로 꾸미는데 돈을 쓰는 것 역시 20대 혼삶족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매달 60만원씩 내는 월세집을 계약하면서 가전·가구 사는 데는 약 500만원을 지출했다. 이씨는 "평일 점심은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며 모은 돈"이라며 "이왕 사는 거 오래 쓸 생각으로 좋은 것들로 샀다"고 말했다.

개인 공간은 따로 두면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셰어하우스'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다. 전·월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슷한 또래와 어울리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직장인 김모(20대)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셰어하우스에서 지내며 직장에 다니고 있다. 김씨는 "셰어하우스에 함께 사는 사람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자취할 때보다 식비·관리비·주거비가 훨씬 적게 든다"고 했다.

이은희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무조건 안 먹고 안 쓰며 돈을 모았던 기성세대의 절약과는 달리, 청년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있는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개성·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1인 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김서원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추석에도 응급실 지킬 것... 위급환자 살리는게 보람”

비상근무 이어가는 응급전문의들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 피로 누적에 한계점은 가까이 와 경증환자, 더 급한 분 위해 양보를



정성필 교수(오른쪽 둘째)가 야간 근무 다음 날인 9일에도 응급환자를 보고 있다. 김중호 기자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인사처럼 오간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여파로 버티기 힘든 응급실 의사들이 사직하면서 24시간 돌아가야 할 응급실이 진료를 제한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그래도 사태 이전 평상시 대비 73%(지난 2일 기준)의 응급실 의사가 현장을 지키는 등 위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의학과를 택한 이들은 응급실 섰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떠나지 못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날(8일) 야간근무 뒤 인터뷰에 응한 정성필 교수는 “추석 연휴가 응급의료의 고비”라는 우려에 대해 “초응급 환자는 최선을 다해 우선 치료하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증인 분들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데, 더 급한 분들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응급실 의사에게 남들 쉬는 연휴에 더 일하는 건 너무도 익숙한 일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과거 너털 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하는 요즘도 마찬가지다. 정 교수는 “혼자 근무할 때 찢어진 곳을 꿰매야 하는 환자가 들어오면 20~30분은 다른 환자를 못 보는 등 전보다 정말 힘들다”면서도 “환자를 돕는 순간

하나하나가 여전히 보람차다”고 말했다. 한양대 구리병원 김장선 응급의학과 교수도 “(전공의 이탈 후) 원래 한번에 전문의 1명씩만 근무하는데, 추석에는 2명씩 근무할 예정”이라며 “힘들어도 근무를 늘려야 버틸 수 있으니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추석 연휴는 간신히 넘긴다고 해도, 그다음은 또 문제다. 의·정 갈등으로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윤재철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이 유지되면 전공의가 계속 배출돼야 하는데, 지방일수록 당분간 그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몇 년은 함께 일할 전공의가 없을 거라는 게 우울감을 더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전공의 부족뿐 아니라 최종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과나 협진하는 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정성필 교수는 “어젯밤에도 경련 환자 수 응 문의가 왔는데, 한 명뿐인 신경과 교

수님이 병원에 안 계셔서 받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장선 교수도 “환자를 최대 20명까지 혼자 보고 있어 ‘내가 실수하면 끝’이라는 부담감이 크다”며 “영상의학과 당직의사도 부족해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도 혼자 보고 판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현재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4곳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응급실 의사들의 공통된 우려다. 촘촘하게 돌아가는 응급의학과 특성상 1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인력의 업무 강도가 급격히 올라가 연쇄 사직이 벌어질 수 있다. 정성필 교수는 “내년 3월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버티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도 법적 리스크를 안는 등의 문제를 해소해 젊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수현 기자

여당 주도 속 야당 내 회의론... 용산 ‘친한 빼고 만찬’ 잡음

여당, 협의체 가동 땀 민심에 도움 야당 “한동훈이 띄운 협의체, 글썽” 용산, 만찬에 “민심청취용” 해명 여당 일각 “윤·한 간극 또 확인”

체에 대응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논의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한 대표 측은 “최근 경찰이 일부 전공의 단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의료계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사법 대응보다 대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공인된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산책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동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다.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 동침을 유도하는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오도록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가 사법 대응 자제를 언급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그만큼 협의체 가동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당내에선 한 대표가 띄운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녹여내면 냉담한 민심도 일정 부분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면 완고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한 한 대표의 정치력이 부각될 것”(여당 관계자)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면서도 “정부는 한 대표가 말한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해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료 대란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야당을 끌어들이 필요 없다”(전현희 최고위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띄우고, 의료계는 부정적인 협의체에 굳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선 의료계 설득이 지체되면 민주당이 받을 뻔 거라는 전망도 나온

다. 이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의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만찬을 갖기로 한 것을 두고도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기 위한 포석 아니냐”(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의 협력과 긴장이 일차방정식이 라면, 여권 내부의 묘한 간극은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추석 전 의료 공백 최소화’라는 기조와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큰 틀에선 이견을 좁혔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인식 차이와 감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8일 친윤 성향의 인요한·김민진 최고위원, 5선의 윤상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종일 술렁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의료개혁과 지역 민심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정치인 등과 만나 수시로 민심 청취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장동혁·진중음·김종혁 최고위원 등 친한계 지도부가 만찬에 빠진 점을 들어 “윤·한 간극이 또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한 대표는 “만찬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만찬이 다음 날 바로 알려진 건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으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대신 증원 대상인 의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증원 규모를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중진의원들은 “의대 교육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증원 규모가 큰 의대를 꼼꼼하게 심사해 증원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국화·이창훈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곡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매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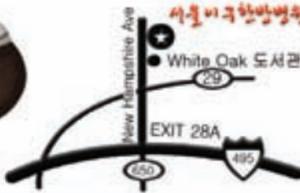
- *신비한 재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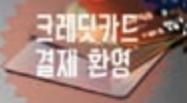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붓종,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TV TRAVEL CHANNEL 서울미곡한방병원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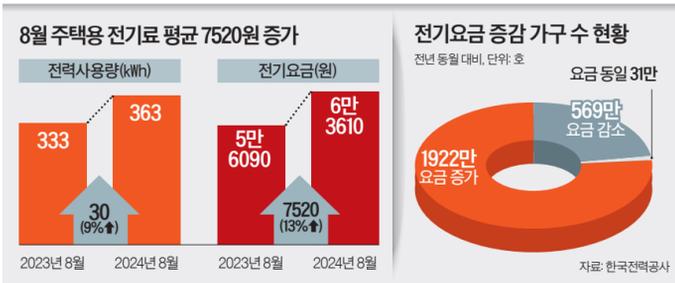


곧 날아올 8월 전기료 고지서, 113만가구 5만원 넘게 더 낸다

폭염·장마 이어져 냉방수요 급증
전력 사용량 작년보다 9% 증가
누진제로 요금 인상폭은 13%
열 집 중 여덟 집이 요금 늘어나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무려 113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이상 높아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8월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1년 전 대비 9% 증가했다.

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6만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0원(13%) 증가했다. 전체 2522만 가구 중 76%인 192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특히 요금이 5만~10만원 증가한 집



이 75만 가구, 10만원 이상 증가한 집은 38만 가구에 이른다. 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구만 놓고 보면 평균 증가액은 1만7000원 수준이다. 평균 전기료 수준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반대로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전체의 23%인 569만 가구였다.

올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은 '역대급' 폭염·열대야·장마에 냉방 전기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 평균 최대 전력수요(하루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도 전년 동월(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금 인상 폭(13%)이 사용량 증가 폭(9%)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

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상승할 수 있다. 정부는 41조원의 누적 적자, 2023년 89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여름 이후 전기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전기료를 올리고, 대신 취약 가구에 집중적으로 부담 완화 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계획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일본은 13만 5625원, 프랑스는 14만8057원으로 한국의 2배를 넘는다. 미국의 경우 15만

9166원으로 한국의 2.5배, 독일은 18만 3717원으로 2.9배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급되는 전기료 고지서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을 추가 반영해 취약 가구의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에너지바우처와 한전의 복지할인 지원으로 전기요금이 면제된 가구는 약 31만 3000가구, 1만원 미만으로 내는 가구는 22만5000가구다.

한전과 정부는 요금 인상뿐 아니라 요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오홍복 한전 기획부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 요금 제도 개편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민 기자

'서울 34.1도' 85년만의 9월 폭염... 추석 때도 낮엔 30도 더위

대전 34.9도, 9월 역대 최고 기온
서울 오늘 낮 33도, 내일은 더 올라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9일 수도권 전역(웅진군 제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셈이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과 충남 공주·충북 청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전남과 경남 곳곳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9월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경북 의성군 단북면의 한낮 기온은 35.8도를 기록했고, 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9일 오후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분수터널을 거닐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우산 아래서 책을 읽고 있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우산 아래서 책을 읽고 있다.

기도 안성시 고삼면에서는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치솟았다. 이례적인 가을 폭염에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9월 일 최고기온 신기록이 쏟아졌다. 대전은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으며 1969년 대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최고기온 기록

을 갈아치웠다. 전남 34.3도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수립한 지 하루 만에 기록을 재경신한 것이다.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 전북 고창, 충남 금산, 강원 정선 등도 이날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한낮 기온이 평년(27.1도)보다 7도나 높은 34.1도까지 올랐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9월 기온이다. 역대 1위 기온은 1939년 9월 2일에 기록한 35.1도다. 추석이 코앞인데도 한여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건 대기 상층에서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하면

서 북쪽의 찬 공기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 하층에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을 높이고 있다'는 게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의 설명이다.

가을 폭염의 기세는 10일과 11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10일은 33도, 11일은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새벽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등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더울 전망이다.

천권필 기자

진종오 "사격연맹, 선수들 올림픽 포상금은 안 주고 직원들엔 성과급"

전 회장 비리, 연맹 부실운영 폭로
"체육계 부패 끝까지 뿌리뽑아야"
진종오(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직원 임금체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과 대한사격연맹의 부실 운영을 폭로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 70여 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사건만, 또는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고 한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연맹

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신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명주병원)에서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자 약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고용노동부는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 상태"라며 "신 전 회장이 본인의 부동산

을 처분하고 금년 중 3억1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구두상의 약속일 뿐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비위 사실과 함께 사격연맹 사무처의 부실 운영 및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무처의 모 처장은 채용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개인 비리 의혹을 포함해 예산 부분까지 사무처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

하고 있다"며 "선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이 성과, 포상 등 수천만원원을 절차와 승인 없이 지급했다는 점 등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외에도 재(在)캐나다대 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중학생 레슬링 선수들의 부모 동의 없는 육상 대회 차출 등의 제보 사례도 소개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내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주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우리말 바꾸기

‘반나절’은 몇 시간일까?

‘나절’은 하룻낮의 절반쯤 되는 동안이다. 그렇다면 ‘반나절’은 하룻낮의 절반이다. 즉 하룻낮을 12시간으로 본다면 ‘반나절’은 6시간이 된다. ‘반나절’은 ‘한나절’의 반이므로 3시간이 된다.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과거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렇게 풀이돼 있어 오해하거나 헷갈릴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국립국어원은 언어현실을 반영한다면서 ‘한나절’의 의미에 ‘하룻날 전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반나절’은 ‘한나절의 반’ 또는 ‘하룻날의 반’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에서 대혼란이 발생한다.

‘한나절’은 기존처럼 6시간도 되지 않지만 하룻날 전체인 12시간도 된다. 그리고 ‘반나절’은 3시간도 되고, 6시간도 된다. ‘전국반나절 생활권’이란 말을 차를 타고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포함하므로 왕복 5~6시간 정도의 거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나절’은 6시간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절과 한나절·반나절이 모두 6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셋이 동의어가 된다.

‘한나절’ ‘반나절’은 시간 개념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려면 ‘한나절’ 대신 6시간·12시간, ‘반나절’ 대신 3시간·6시간 등의 표현을 써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레트로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



서재선
경제부 기자

중학교 2학년 때다. 학생주임 선생님을 찾아가 애걸복걸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머리카락만큼은 자르지 않게 해달라’고. 2010년대 초 빅뱅, 2PM 등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구레나룻(옆 머리)을 기른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던 시기다. 목숨보다 소중한 구레나룻을 사수해야 했던 까닭에 ‘호랑이’ 학생주임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당연히 ‘정신 털 차렸다’는 쓴소리가 돌아왔다. 학생부를 나선 그 길로 학교 앞 미용실에 가 바리칸에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잘려나간 건 덤이었다.

젊은 세대는 유행에 민감하다. 가치관이 설익은 이들에게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구레나룻이 없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던 나처럼 말이다. 젊은 세대가 유행을 생산하고, 정의하며, 선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가 눈길을 돌린 아이템, 패션, 문화를 들여다보면 마치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최근 영국에서 출시한 바비폰이 대표적인 예다. 바비폰은 인터넷을 활용 기능이 제한되는 구식 폴더폰이다. 문자·메시지·사진촬영 등 휴대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한물간 물건이라는 의미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구식제품을 내놓

은 이유는 단순하다.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다. 노키아의 2022년 폴더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0%나 급증했다. 첨단 기능을 탑재하지도 않았으며, 자랑 겸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저렴한 폴더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같은 해 미국의 LP판 판매량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CD 판매량을 앞질렀으며, 필름카메라, 카세트테이프 등의 수요 역시 폭발적이다. 영화 재개봉과 음원차트 역주행이 비일비재하며, ‘레트로’, ‘아날로그’, ‘향수’, ‘컴백’ 등 최근 유행 제품들 앞에는 과거지향적인 수식어가 붙는다. 젊은 세대는 청량한 음질 보단 LP판 굵히는 잡음을, 고화소 사진보단 노이즈 가득한 필름 사진에 눈길을 더 준다는 얘기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등교하라는 ‘반삭령’이 학교를 달굴 때마다 학생주임이 강조한 말이 있다. ‘학생은 학생 다올 때 가장 이쁘다’는 것이다. 이는 자라면서 걸치레에 치중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충실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레트로 열풍은 내실과 본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은 순간을 담는 게 본질이다. 음악은 되감을 수 없는 것이 매력이며, 휴대폰은 타인과 소식을 주고받는 게 주요 기능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태어난 Z세대는 사진을 찍으면 교정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시간을 내서 하는 음악감상은 진부할 뿐이며, 만나서 교류하는 것보단 스마트폰을 통한 SNS 교류가 편한 세대다. 편의성에 길든 이들 젊은 세대에게 구식 문물은 불편한 것 투성이며, 진부함의 끝판왕인 셈이다.

심심한 것 투성이인 물건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각도를 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을 땐 ‘찍는다’는 행위, 음악 감상에는 ‘듣는다’는 행위, 대화엔 눈을 보고 ‘말한다’는 본질적인 행위가 주는 기쁨을 Z세대들이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반삭을 거부하고 학생부를 찾아간 중학생 시절 나의 모습과는 대치된다. 걸치레에 눈이 먼 것과 행위가 주는 기쁨을 발견한 Z세대들 사이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Z세대의 레트로 열풍은 단순히 옛것에 대한 향수가 아니다. 과거로의 뒷걸음질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에 집착한 나머지 행위의 즐거움은 상실한 세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되레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J네트웍

정치의 말들, 말들의 정치



정강현
워싱턴 특파원

문학이 말의 예술이라면, 정치의 말의 기술이다. 말을 다듬는 재주보다 말을 부리는 솜씨가 정치인의 성패를 가른다.

지난달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취재했다. 전대 현장은 정치 언어 기술자, ‘연설 천재’들로 반짝였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 언어’는 청중들과 스미고 짜이면서 ‘문학 언어’의 경계마저 넘나들었다.

이틀테면 국내 언론에 타이틀로 뽑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예스, 쉬 캔(Yes, she can)”은 실은 원고엔 없는 대목이었다. 맨 앞줄에 있던 청중이 먼저 오바마의 16년 전 구호 “예스, 위 캔(Yes, we can)”을 뒤늦게 “예스, 쉬 캔”이라고 외쳤고, 오바마가 그걸 받아주면서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미셸 오바마 여사의 “두 섬썩(Do something- 뭐라도 하세요!)” 역시 청중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고받는 리듬 속에서 그의 미가 더 깊숙이 각인됐다.

민주당 ‘스타 연사’들의 강렬한 정치 언어는 그 자체로 정치 행위로 읽히기도 했다. 정치의 말들이 세심하게 정교해지면 그 말들이 정치를 주도하기도 한다는 것.

미국 정당의 축제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있자니 어쩐지 착잡해졌다. 우선 저급한 우리 정치 언어가 떠올라서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날 그곳에서 끝내 말해지지 않은 말들 때문이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독재자 김정은’ 이름 한 토막을 제외하면, 나흘간 한반도 문제가 연사들

의 입에 오른 건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간에 아예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한 정강을 추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던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하지만 끝내 말해지지 않은 말들에 대한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은 너무 느슨해 보인다. 외교부나 주미 대사관 측은 민주당 정강에서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배경이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원칙만 재확인할 뿐이다.

정치 언어에선 말해지지 않는 것 또한 강력한 메시지다. 미국 유력 정당에서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연설 천재’ 미셸 여사의 이 간명한 명령문을 우리 외교 당국을 향한 다급한 메시지로 읽고 싶다. “뭐라도 하세요!(Do something!)”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별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될 때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테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신체기능개선, 대장균과 신장대신작용의 연립

산성피해균 녹음

대박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코팅식이섬유 **래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항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농협용심 인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감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용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용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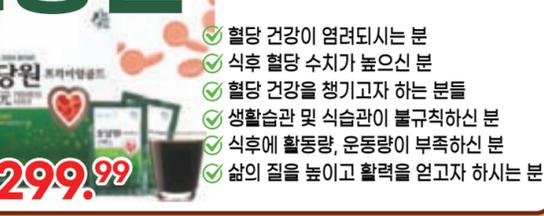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클루타치온 콜라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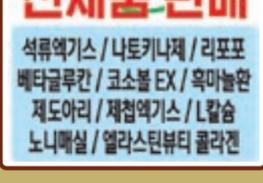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늘환
제도아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마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돌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판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레나 고



윤태웅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미강**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미강**
10박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p>9월 정통 서유럽 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 9/23~10/3 미강 \$3,490+항공 10박11일 10/9~10/19 미강</p>	<p>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12/23~12/29 \$2,3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p>	<p>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항공</p>	<p>9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 9일 9/18~9/26 \$3,290+항공</p>	<p>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항공</p>	<p>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7박 8일 3/17~3/24/25 \$3,190+항공</p>	<p>9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항공</p>	<p>1월 인도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항공</p>	<p>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27~4/5/25 \$3,990+항공</p>	<p>9월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9/25~10/1 \$2,890+항공</p>	<p>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2/17~2/26/25 \$3,590+항공</p>	<p>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하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4/14~4/20/25 \$2,990+항공 (봄방학 특선)</p>	<p>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8~10/18 \$3,190+항공</p>	<p>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11,500+항공</p>	<p>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890+항공</p>
---	--	---	---	---	---	--	---	---	---	--	---	--	---	---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특정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3차 9/24~10/4 **미강**
4차 10/15~10/25 **미강**
5차 10/22~11/1 (타종특) **미강**
6차 10/29~11/8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한국관광의 모든 것!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다낭** \$4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9/19, 10/1, 10/17, 10/29, 11/14,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16, 9/30, 10/7, 10/14, 10/30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몬트리올/퀘벡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원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몽골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Tuesday, September 10, 2024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805점 만점에 717점 받아야 톱스쿨 가능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면서 학부를 졸업하고도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됐다. 특히 자신의 전공과 상이한 프로페셔널 대학원 진학도 많아졌다. 법과 대학원(로스쿨), 경영 대학원이 대표적인 프로페셔널 스쿨이다. 경영 대학원의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에 대해서 알아본다.

언어적 추론, 데이터 분석력 측정
온라인 오프라인 시험 모두 가능
1년에 5번, 평생 8번 볼 수 있어

경영대학원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지원자는 경영 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에서 뛰어난 점수를 얻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일부 학교는 점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입학 경쟁이 있는 학교는 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명문일수록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경영 대학원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추론 능력, 즉 정량적 추론, 언어적 추론, 데이터 통찰력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능력은 MBA 프로그램에서 성공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GMAT는 해당 분야의 적성과 역량을 나타내는 매우 좋은 지표다. 하지만 GMAT가 모든 경영 대학원의 입학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입학 사정 과정의 일부로 비중이 크다.

#GMAT란 무엇인가

GMAT는 표준화된 경영 대학원 입학 시험으로 2시간15분 동안 진행되며 45분짜리 3개 섹션으로 총 6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을 통해서 지원자는 (1)양적 추론 능력(수학적 능력과 수치 활용 능력을 측정) (2)언어적 추론(독해 능력, 편집 능력,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3)데이터 통찰력(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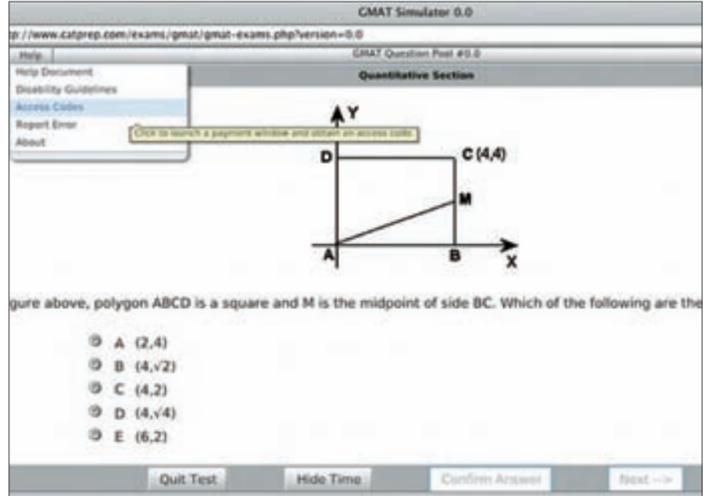
터 분석, 데이터 해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기술을 평가) 등을 보여주게 된다.

GMAT는 SAT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역시 입학 후 수학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인재가 입학하면 좋은 인재로 배출된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 해결능력을 중시한다. 법과대학원과 달리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졸업 자체가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리얼 월드에서의 해결 능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 바탕이 좋은 사람을 입학시키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험생의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수학과 논리, 약간의 추론에 대한 문제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는 수학 시험이나 학력 시험이 아니다. 응시자는 모든 섹션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에 검토하기 위해 문항에 북마크를 추가하고 문제당 최대 3개의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

#좋은 GMAT 점수란

GMAT 응시자는 각 섹션에 대한 점수와 총점을 받게 된다. 점수 범위는 205~805점이며 10점 단위로 채점된다. 섹션 점수 범위는 60~90점이며 1점 단



GMAT시험은 SAT와 유사한 방식으로 컴퓨터 적응형으로 진행된다. 시뮬레이터 스크린샷.

위다. 입학 사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점보다 백분위 점수에 더 중점을 둔다. 60퍼센타일(percentile, 575점) 정도를 좋은 성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부 톱 경영 대학원의 평균 점수는 717점 이상이다.

섹션별로 점수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언어적 추론이 80퍼센타일인데 언어적 추론이 20퍼센타일인 지원자보다는 두 분야에서 60퍼센타일인 지원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 대학원의 평균 GMAT 점수를 넘어서는 것이 좋다.

#GMAT의 컴퓨터 적응형 형식은 어떻게 작동하나

SAT를 비롯하여 많은 표준 시험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전개 방식도 비슷하다. GMAT도 예외는 아니어서 GMAT의 각 섹션은 평균 난이도 문제로 시작되며, 문제는 응시자의 정확성에 따라 난이도가 계속해서 달라진다. 따라서 맞는 정답을 고르면 일반적으로

로 더 어려운 문항이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에 잘못 답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질문이 더 쉽다. 시험이 끝나면 컴퓨터는 어려운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의사 결정 섹션은 평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테스트의 적응형 특성이 평가에 도움을 준다. 비즈니스 경력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GMAT 응시 기회는 어떤가

GMAT는 학부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 학부 프로그램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 졸업 후 곧 응시할 수 있다. 반면에 졸업 후 10~15년 정도 지났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작정 시험을 치르는 것은 별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지원자들은 '경영 대학원 입학위원회'(GMA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mba.com에 계정을 만든 후 일정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온라인으로 GMAT응시 등록을 한다. 장병희 기자

>> 2면 'GMAT'으로 이어집니다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황원묵의 과학 산책

지피지기

손자병법에 이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는 적과 나, 싸움, 그리고 위태로움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병법을 넘어 두루 적용된다. 사회생활의 경쟁도 해당된다. 승패는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보기 나름인 면이 있으니, 위태롭지 않음을 큰 문제 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수업에서는 청중이 ‘적’이 되고 ‘싸움’은 강의하는 것이다. 이때 적과 싸움은 본래 의미를 떠난 상징적 용어이다. 나와 학생들 지식 수준의 차이를 알아야 강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고 위태로운 정도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지식 전달을 할 수 있느냐가 된다. 전문가 육성, 혹은 폭넓은 지식 전달 등 그 초점에 따라 좋은 강의의 기준은 바뀐다. 비슷한 상황은 공연·예술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 모든 경우 핵심은 상대방과 자기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나일 수도 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때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처한 상황과 해야 할 일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싸움과 위태로움은 실천 의지와 끈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더 근본적으로 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번역체계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번역 반응에 특히 중요한 T세포와 B세포들은 나와 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다. 암세포는 적으로 바뀐다. 내 세포를 오인 공격하면 자가면역이 되고, 무해한 물질에 반응하면 알레르기가 된다. 지피지기,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우리 몸의 번역체계에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백전 백승은 아니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위태로움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텍사스A&M대 생명공학부 교수

달탐사 한 번만으론 부족... 장기 계획 고민해야



유럽우주국(ESA)이 구상하고 있는 유인 달 기지 '문 빌리지 (Moon Village)'의 상상도. 2040년 100명 안팎이 달에 상주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 ESA]

지난달, 대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산학협력단에 속한 4개 팀이 일을 분담해 달 기지와 유인 탐사에 관한 보고서를 쓴다며 두 팀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 팀은 대면, 또 다른 한 팀은 비대면으로 만났다. 독자들을 위해 그들이 한 재미난 질문을 몇 개 추려봤다.

학생들은 의식주에 관해 궁금해했다. “최근에는 우주복에 에어로젤 같은 소재를 쓰는데, 새로 나온 재질이 더 있나요?” 이번엔 먹거리다. “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재배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독 달 기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적도에서 별이 뜨는 곳은 120도, 북극 크라이터는 영하 250도까지 떨어지죠. 반투명 소재로도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단열이 잘 되는 소재가 나올 거라고 대답했다. 당황스러운 질문도 나왔다. “논문을 봤는데 ‘달 표면에서 수직 터파기는 2m, 다짐으로 수직 흙 쌓기는 1m가 가능하리라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다. “운석의 충돌 확률은 낮지만, 기지를 세울 때 온도 차 말고도 고려할 게 있나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지구 자기장은 0.5가우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은 300~500가우스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주잖아요? 달에 수 자기장을 만들어 태양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달 지진(월진)을 예측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월진은 지구와 달이 밀고 당기는 조석력과 지질 구조 때문에 생긴다. 소행성 충돌도 한몫한다. 예측하기 어렵다. “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에서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나요?” 에너지원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유·무인 로버에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 동력원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정치와 경제 이슈에 관한 질문들도 쏟아졌다. “지구처럼 국가별로 달에 거주

지역을 나눈다면 나중에 영토로 편입되는 건가요? 달 기지를 지으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요?” UN의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에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구는 단계별로 다를 거라고 예상한다.

달탐사 때 가능한 다양한 연구들

지난달 중순, 부산에서 우주과학 분야의 최대 규모 학술대회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즉 코스파(COSPAR) 총회가 열렸다. 우주항공청과 미 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 등 여러 나라 우주기관을 포함해 6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이 모였다. 유인 우주 임무를 위한 국내 연구자의 발표가 눈에 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지구에서도 새로운 생명과학 실험을 제안했으며, 연세대와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미소 중력이 세균과 생물의 신경과 면역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우주의학에 관한 발표가 잇달았다. 인하대에서는 쥐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인지행동 변화를, 2개 국내 업체는 각각 달탐사 응급의료 차량과 중력을 이용한 유전자 실험을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한림대에서는 장기체류 우주인의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실험을 제안했다. 김치볶음밥과

고추장·된장국과 녹차·라면과 같은 우식을 만든 한국식품연구원은 우주식 개발 계획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몇 가지 우주 소재 실험을 공개했다.

얼마 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 그룹은 우주항공청 지원으로 2032년 우리 달착륙선에 실어 보낼 과학 장비와 로버 기술을 탐색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는 국내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참여 의향과 아이디어를 담은 계획서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말 워크숍을 열어 22편의 발표를 들었다. 천문연구원은 로버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실어 달 용암동굴의 3차원 구조를 밝히는 계획을 공유했다. 땅을 파봐야 그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깊이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표면에 꺼져 함몰된 용암동굴의 싱크홀을 탐사하는 거다. 과학자들은 열과 미소 운석으로 밀가루처럼 곱게 부서진 흙과 용암이 켜켜이 쌓인 달 지질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러면 공학자는 지층 단면을 보고 유인기지 건설을 위한 ‘터파기와 다지기’를 설계한다.

산·학·연 함께하는 우주 아이디어

싱크홀 탐사 계획은 이렇다. 달 착륙선이 탄소 케이블에 소형 2륜 로버를 매달아 그 입구에 투입한다. 케이블

로는 전기를 공급하고 명령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한편, 동굴 안을 살살이 짚는다. 국내 업체는 이에 꼭 맞는 2륜 로버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는 모터와 배터리 개발, 환경시험과 구조체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방사선과 운석, 일교차를 걱정할 필요 없는 훌륭한 피난처다. 그래서 기지를 설계할 때 방사선과 열 차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보다 경제적인 해법이 있을까? 그 밖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수소 채굴 실험장치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 연료전지를 제안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주에 관해 이처럼 다양한 요구가 넘친다. 이번에 발표된 22건의 제안 중에는 착상 단계에 머무는 것도, 그 수준이 탁월한 것도 많았다. 달 착륙선을 단 한 번만 보내기에는 아이디어가 너무 아깝다는 게 워크숍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6월 말, 중국의 무인 달 착륙선 창어 6호는 달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서 흙을 캐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2026년과 2028년, 창어 7호와 8호를 연달아 보낸다. 다음은 유인 달착륙이다. 우리도 지속 가능한 우주탐사 장기계획을 고민할 때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우주탐사그룹장

▶ 1번 'GMAT'에서 이어집니다

응시 비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현재 GMAT의 온라인 버전은 미국에서 300달러, 시험 센터 버전은 275달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응시 비용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GMAT 시험 센터는 미 전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마련돼 있다. 시험은 매일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감독관이 감독한다. GMAT응시는 16일에 한 번 응시할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5번 응시할 수 있다. 평생 8번의 응시만 가능하다.

#경영 대학원에서 GMAT를 사용하는 이유

경영 대학원이 GMAT 점수를 사용하여 예비 MBA 학생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한다. GMAC에 따르면 입학 결정의 70%가 GMAT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GMAT는 경영대학원을 입학 위한 유일한 시험이다. 하지만 응시를 위

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없다.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과소 평가하지만 GMAT 준비에 3~6개월은 필요하다. 아무래도 컴퓨터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들은 ‘시험 모드’와 ‘학습 모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혼자 GMAT를 준비하려면 웹사이트에서 무료 6주 학습 플래너, 70개의 GMAT 스타일 연습 문제 및 2개의 전체 길이 연습 시험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물론 시험 준비를 위한 튜터도 있다.

#GMAT 점수를 어떻게 향상시키나

시험을 본 후 제공되는 성적표는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다음 응시에 집중해야 하는 강점, 약점 및 영역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MBA 트랙을 추구하는 지원자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기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섹션의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리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학생이 만족해야 진정한 명문대... 3분의 1은 무전공 선발”

(2025학년도 신입생)

취임 1주년 안순철 단국대 총장

단국대학교는 올해 죽전 캠퍼스에 있는 만 개의 책상 중 절반을 교체했다. “의자와 붙어 있는 일체형 책상이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들은 안순철 총장이 즉시 교체를 지시한 결과다. 안 총장은 “직접 강의실에 가서 앉아보니 정말 불편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옮겨올까봐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안 총장은 명문대의 조건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을 꼽았다. 그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VOC(Voice of Customer)에 올라온 학생 건의사항도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다. 안 총장은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총장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안 총장을 만나 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물었다.

명문대학의 기준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을 제시했는데.

“자신이 진학할 대학을 성적에 고려해 선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이 4년 후에 대학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가, 그 대학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대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혁신을 했다.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캠퍼스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화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직접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유류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기도 했으며, 야외도서관인 베어토피아와 둘레길을 만들었다.”



단국대학교 안순철 총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 있는 총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안 총장은 교육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 단계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전공 선발의 확대다. 학생 중심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025학년도 신입생의 33.8%인 1041명을 학문(학과) 단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치외에-예체능 등 광역 모집을 할 수 없는 일부 학과 신입생을 제외할 수 있다. 죽전과 천안 캠퍼스에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퇴계-육곡혁신칼리지도 신설했다.

무전공 선발을 대폭 확대했는데.

“2025학년도에 정원의 3분의 1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무전공 확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학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체형 책상 불편” 민원에 교체 만족도 높여야 야외도서관 조성 무전공 학생용 혁신칼리지 신설

의대 정원 3배... ‘미니의대’ 탈피 120명 중 60% 지역인재로 선발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무전공 확대가 대학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전공 확대를 통해 학과 상호 간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육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신입생이 자신의 적성

에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1학년 교과 과정을 대폭 혁신하고 있다. 각 학과 단위에서도 신입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국대는 학생 지원과 민원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AI 맞춤형 학생지원 비서인 ‘단아이(Dan.i)’를 선보였다.

학생들을 위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나.

“단국대는 인공지능 기반의 학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대학이다. 단아이는 학생의 관심 분야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또, 대학의

학과와 민원 등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안 총장의 목표 중 하나다. 단국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리무스 국제대학(PRIMUS)을 설립했다. 프리무스(PRIMUS)는 라틴어로 ‘최고’ ‘선두’를 뜻한다. 대학의 국제교육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단과대학으로 영어트랙 교육과정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프리무스 대학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나.

“프리무스 대학은 영어트랙과 한국 어트랙이 있다. 영어 트랙 교육과정으로는 학부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경영학과·모바일시스템공학과·한국학과·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가 있고, 교양과정도 영어로 개설돼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도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트랙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글로벌기초교육 학부에서 한국어 및 전공기초를 수학한 후 희망 학과로 진학하도록 해 안정적인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국대는 의대 정원도 3배로 늘리면서 미니 의대에서 탈피했다. 올해는 기존 40명에서 두 배 늘어난 80명을 모집하고, 2026학년부터는 120명을 선발한다. 안 총장은 “지역 권역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120명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권필 기자

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새로운 소비 핑티

(平替)

세계적인 중저가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중화권 매출이 크게 줄었다. 지난 3~5월 회계분기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10.4% 감소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4.29% 증가에 그쳤다. 1년 전 증가율 49.38%의 10분의 1 수준이다.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은 마케팅 전략 바꾸기에 분주하다.

판닝(潘寧) 유니클로 대중화(大中華)지역 대표는 매출이 고꾸라진 원인으로 ‘핑티(平替)’를 꼽았다.

핑티는 핑자타다이(平價替代), 즉 “싼 가격으로 대체한다”의 줄임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유명 브랜드와 원료와 품질이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대체 소비를 말한다. 판닝 대표는 “중국 젊은 세대의 가성비 소비가 두드러졌다”며 “중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다”고 했다. “브랜드 제품 대신 품질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보다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기 다다시(柳井正·75) 회장은 “고객이 서점에서 잡지를 사듯 쉽게 좋은 품질의 저렴한 캐주얼 의류를 살 수 있게 하자”를 경영이념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중화권 매출이 전년 대비 15.2% 상승하자 유니클로 차이나의 직원 임금을 44% 인상했다. 중국에서 유니클로는 ‘좋은 옷 창고’

란 뜻의 유이쿠(優衣庫)로 불린다. 실은 유니클로야말로 ‘핑티’ 소비의 대표 브랜드였다. 그랬던 유니클로마저 매출이 꺾이자 “핑티가 핑티당했다”는 중국 경제지 보도가 쏟아졌다. 알리바바 계열의 공장 직판 플랫폼인 1688에 “유니클로와 같은 공장(工廠同源)”을 검색하면 수많은 유니클로의 핑티 제품이 검색된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小紅書)에서 핑티 관련 트래픽이 10억 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도 핑티 소비를 조명했다. 명품 프라다의 수백만원 대 코트와 똑같은 이탈리아 원단을 사용한 중국 의류업체 칩

작(Chicjoo)의 헤링본 코트가 3200위안(60만원)에 불타나게 팔린다.

핑티는 과거 짝퉁이나 가품과 다르다. 중국 젊은 층의 새롭고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핑티의 골기는 사치품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중산층이 그동안 외면했던 자국산 브랜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유니클로, 아디다스 등 중급 브랜드까지 위기에 빠뜨렸다. 품질과 가성비로 무장한 핑티 제품은 알리·테무·웨이펄 플랫폼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도 시작했다. 중국시장 공략과 한국시장 보호,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배이정총국장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 고민,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니븐 플랜
상급용
방4+
화3 차고2

\$56만
알링턴 콘도
방2+2방베리
공용공간 베드룸의 인편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대학 학비 재정 보조금 종류

학교에서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Grant(Gift Aid)와 Self-Help Aid이다. Grant는 한번 받고 나면 다시 값을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선물로서 도로 값을 필요가 없는 보조이며, "자가 부담 보조" Self-Help Aid는 학생이 일을 하거나, Loan을 통하여 학생이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나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일정부분의 Self-Help Aid가 같이 지원되게 된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50:5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0:20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고, 거꾸로 20:80, 즉 Grant는 거의 없고 Loan으로만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다. 과연 어느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가를 알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등록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Grant(무상보조)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학비 보조 형태이다. Grant는 용자(loan)와는 달리 도로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는 Free Money이고 장학금(scholarship)과 다른 점은 Merit(성적 우수, 운동 특기 등)에 근거한 보조금이 아니고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생의 가정 형편, 경제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학비 보조금으로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애매하게" 부유하면 불리하다. 다시 말해서 아주 부유해서 학비를 넉넉히 내고

도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아예 가난해서 무상보조를 받고 저렴하게 대학을 다니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소득의 가정은 무상보조의 혜택도 못 받고 학비는 학비대로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Grant는 연방 정부, 주정부, 학교, 공공 기관에서 수여한다. 연방 정부에서 수여하는 그랜트(Federal Grant)에는 Federal Pell Grant,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 TEACH Grant(Teacher Education Assistance for College and Higher Education), Iraq and Afghanistan Service Grants 등이 있다. 펠그랜트(Pell grant)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일년에 \$7,395로서 매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컴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GPA(보통 2.0)를 유지해야 한다.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대학 신입생들 중 많은 경우 이 성적도 유지 못해서 다음 해에 Pell Grant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적을 근거로 수여된 것이 아니지만 일정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적을 유지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Pell Grant를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또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 (AC)라는 1,2학년들에게 수여되는 성적 그랜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3,4학년에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에게 수여되는 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SMART)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주정부에서 주는 그랜트(State Grant)는 주마다 그 이름과 종류가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수여하는 Cal Grant, 매릴랜드 주의 Guaranteed Access Grant, 버지니아 주의 Virginia Commonwealth Award Program, Virginia Guaranteed Assistance Program 등이 주에서 수여하는 대표적인 그랜트이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랜트가 있다. 주에서 수여하는 그랜트는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소수 민족이거나, 저소득층의 가정인 경우 등 수여 대상의 자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자산금을 가지고 학생에게 수여하는 그랜트(Institutional Grant)가 있다. 학부 학생의 20%만이 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이 "공짜돈"을 실제로 활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학교 외에도 공공 기관이나 사설 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랜트도 있다.

▶Work Study:근로 장학금(work study)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직접 학비를 충당하도록 학교로 지불되는 것

이 아니라 학생에게 지불 된다. 보통 일 주일에 13시간 내지 18시간 일하도록 학교에서 일을 제공하며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장학금은 책값이나 개인 경비등을 충당하는 데 쓰이게 된다. 그런데 이 근로 장학금을 offer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학교에서 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 구내 식당, 교수 사무실, 과 사무실등 학교에 공지된 각종 일 할 기회를 조사, 연구해보고 학생의 수업 스케줄이나 다른 일하는 것과 시간을 조절해서 맞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Student Loans: 부모에게 주는 Loan이 아닌 학생에게 주는 Loan으로 아무런 Credit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낮은 학생에게 Loan을 주는 것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 FAFSA를 신청한 후 주어지는 용자이며 이자율은 낮고 학생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서 학생은 졸업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용자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달러, 2학년 때는 4500달러 그리고 3, 4학년 때는 매년 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용자를 받은 후 발생하는 이자는 학생이 대학 재학중이라도 물어야 한다. 이자 상환은 졸업 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용자 한도금액은 2000달러. 부모 크레딧이 나빠서 부모가 연방정부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2학년때 4000달

러, 3,4학년때는 50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erkins Loan: 연방정부가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보조성 용자이다. FAFSA를 신청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며, 이자율은 5% 고정이다. Subsidized Stafford Loan과 같이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용자금 상환은 졸업 9개월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PLUS Loan: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의 약자이다. 즉 부모님이 대학 학자금을 위하여 받는 용자이다. 가장 쉬운 학자금 지원이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학자금 조달 방법이다. 일단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늦게라도 접수하면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비 청구서가 오면서 같이 PLUS신청서를 보내준다.

부모님의 경우는 Credit에 근거하여 Loan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Credit Score가 낮은 경우에는 Loan이 Deny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금융 기관의 Guarantee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 자율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그랜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폼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폼사에 기입한 정보에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의 액수가 결정되므로, 데드라인에 늦지않게 신청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pedupia@gmail.com

생성형 AI 시대, 고용 극적으로 재편...직업 성공에 기업가적 사고방식 중요

새로운 생성형 AI 시대, 청년들이 직업 성공을 위해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수많은 역할의 자동화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남은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고용주가 장기적인 직업과 소득 안정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다. 청년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의도가 없을지라도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진로에 대해 더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적 기술개발 활동 추구하라

문제 해결, 창의성, 탄력성 및 전략적 사고는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을 기르는 활동과 학습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 동아리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업가적 기술을 강화하는 학습 경험을 찾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라

차세대 바이럴 틱톡 스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에서 젊은 전문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고용주들은 점점 더 직원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어한다. 기업들이 그들의 가치를 홍보하는 마케팅 자료를 가지고 있듯이,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나 과외 활동의 일을 포함하여 그들의 작업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갖는 것도 좋다. 또한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보여주는 해설 시사물을 쓸 수도 있다.

▶네트워크를 개발하라

인간관계는 직업 성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멘토, 업계 리더 및 동료와의 관계를 구축하면 새로운 관점과 고용 기회를 열 수 있다.

▶다양한 소득 경로를 만들어라

기업의 급여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청년들이 현명하게 투자를 시작하여 투자와 함께/또는 부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은 신중한 처사이다.

▶재무 이해력을 향상시켜라

돈을 버는 것은 재정적 건강의 한 측면일 뿐이다. 투자하고 부를 늘리는 방법을 아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 학생이 금융 진로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투자의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평생 학습에 전념하라

AI와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은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에서 적응력과 혁신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습이 학교 이후로

멈춘다면,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위험과 도전을 받아들여라

도전은 종종 혁신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 역량을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를 받아들임으로써 청년들은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커다란 혼란을 개인은 두려움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보다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하면 청년들이 예상되는 커다란 혼란을 더 기회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패럴림픽 펜싱 4위 조은혜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이었다

스크린 속 배우를 빛내던 그가 이제는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조은혜(39·부루벨코리아) 이야기다.

조은혜는 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펜싱 여자 플뢰레(장애등급B) 동메달 결정전에서 베아트리체 비오(27·이탈리아)에 2-15로 졌다. 메달을 딸 기뻐했지만, 도쿄 대회 우승자 비오를 넘진 못했다. 경기 뒤 붉은 눈물을 흘린 조은혜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했지만, 아직 더 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중들은 조은혜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조은혜는 2017년 낙상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영화계에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다. 2017년 개봉해 680만 명의 관중을 모은 영화 범죄도시 촬영 당시 조은혜는 분장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영화 제작 현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됐다.

그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바로 휠체어펜싱이었다. 2018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다 TV를 통해 휠체어펜싱을 접했다. 조은혜는 "우아한 하얀 복장에 치마 같은 경기복이 예뻐다"고 했다. 무작정 장애인



1 휠체어펜싱 국가대표로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조은혜. 플뢰레에서 아쉽게 졌지만, 주 종목인 에페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2 파리 패럴림픽 펜싱 경기에서 조은혜(왼쪽)가 팔을 뻗어 공격하는 모습.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몸을 뒤로 젖혀 피할 순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조은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매일 땀방울을 흘렸다. 왼손잡이란 이점을 살린 그는 끝내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그리고 생애 첫 패럴림픽 출전권까지 손에 넣었다.

항상 배우들을 위해 분장을 하던 그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다른 사람에게 메이크업을 받았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대표해 단복을 입고, 화보를 촬영했다. 범죄도시로 인연을 맺은 배우 진선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리 패럴림픽에 나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무사히 귀국하기 바란다. 은혜야, 화이팅!"이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효경 기자

김영건, 어깨탈구 딛고 '5번째 금' 스매싱

파리 패럴림픽 탁구 단식 제패

13세 때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 "활동량 적은 장애인에 운동은 필수" 한국, 금 6개로 목표 넘겨...내일 귀국



김영건(오른쪽)과 김현준 코치가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탁구 '에이스' 김영건(40·광주광역시청)이 어깨 탈구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건은 8일(한국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MS4) 결승에서 완차이 차이웃(35·태국)을 세트스코어 3-2(6-11, 11-9, 11-7, 9-11, 11-5)로 꺾고 금메달을 땀다. 김영건은 동메달을 따낸 김정길(38·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김영건은 세계랭킹 1위 차이웃에게 첫 세트를 내줬다. 그러나 2:3세트를 내리 따내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4세트엔 앞서다 역전패했지만, 5세트에선 초반부터 포인트를 쌓아 승리했다. 김영건은 "정말 간절했다.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며 웃었다.

김영건은 1997년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16세 때인 2000년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탁구를 접했다. 금세 국가대표가 된 그는 2004 아테네 대회 2관왕(단식·단체전)에 오르며 에이스로 떠올랐다.

2012 런던 대회에서도 단식 정상에 오른 데 이어 2016 리우 대회에선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김영건은 이해곤(7개·탁구)에 이어 김임연(5개·사격)과 함께 한국 패럴림픽 최다 금메달 순위에서 공동 2위로 올라섰다.

김영건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 그는 "지난 4월 어깨가 탈구

됐다. 아픈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다 장까지 터져 수혈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영건은 그러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은 활동량이 부족하다. 선수가 아니어도 운동 하나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성이 맞으면 나처럼 패럴림픽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건은 2021년 1월 결혼했다. 결혼 후 첫 패럴림픽인 도쿄 대회에선 은메달 2개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경기 전 아내와 통화했는데 아내가 '긴장하지 말라. 지금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며 "더 멋진 남편이 되고 싶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파리 패럴림픽은 9일 오전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 10개, 동 14개로 목표(금메달 5개)를 넘어서면서 종합 순위 20위권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10일 귀국한다. 김효경 기자

마이클 잭슨 뺨치는 임영웅 영화, 3만2000원이 아깝지 않은 이유

임영웅의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영화를 단독 상영하고 있는 CGV는 때 아닌 중장년 여성들로 북적이고 있다. 극장 로비의 광고판을 도배한 임영웅 포스터(사진)와 포토존에 전시된 콘서트 의상을 배경으로 극장 나들이 나온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인증샷 찍기에 분주하다.



등장한 임영웅의 존재감이 마이클 잭슨 뺨치고, 콘서트는 '올림픽 클래식'였다. 댄서 수백 명과 매스게임 비슷한 안무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영웅시대'와 눈을 맞추려 열기구를 타고 아슬아슬 객석으로 접근하며 노래 부를 때, 3만2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트 필름 못지않았다. 지난해 첫 영화가 전국투어를 돌아 1만석 고척돔 앙코르에 이르기까지 세대 초월 팬덤을 몰고 다니는 임영웅 현상을 주목했다면, '더 스타디움'은 6만석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채우는 올림픽 스케일의 콘서트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조명했다. 임영웅과 14년을 함께 다녔다는 코러스, 음악을 포기했다가 임영웅이 손 내밀어 다시 시작했다는 세션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업어서 꼭대기 좌석까지 모신 진행요원 같은 일반인들이 주인공이었다.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안녕, 할부지'의 아기판다 푸바오가 어감이 씩 좋지 못한 '사육사'를 '쥬키퍼'로 격상시키고 동물원 식구들을 죄다 영화 배우로 만들었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보통사람

호기심이 발동해 예매를 하자니 관람료가 3만2000원. 관객수 대비 매출액이 큰 이유다. 스크린이 3면으로 확장되는 상영관이라는 했지만, 일반 상영관도 2만5000원, IMAX는 3만5000원이다. 1만5000원 관람료 고가 논란이 무색하게 콘서트 필름은 차원이 다르다. 비싼 관람료에 망설인 게 사실이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생각이 달라졌다. 화려한 비즈로 감싼 재킷을 입고

영화의 완성도도 마이클 잭슨 콘서

들을 히어로로 만든 것이다.

객석도 스크린 속 영웅들과 교감하고 있었다. 콘서트장에 온 양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기는 모습에 어디선가 읽은 5060 영웅시대에 관한 '진세대론'이 떠올랐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헌신할 뿐 평생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임영웅에게 위로 받는다는 분석이었다.

콘서트의 엔딩곡이자 영화의 테마

곡은 '인생찬가'인데, 후렴구가 좀 이상하다. 1절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는 가사가 2절에선 '영원한 순간이여 찬란하라'로 바뀌는데, 형용모순 같지만 임영웅으로 인해 순간을 즐기는 어른들을 보며 무릎을 쳤다. 결국 이런 순간이 모여 영원이 되지 않던가. 순간을 찬란하게 만드는 에너지. 적어도 영웅시대의 삶에 임영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유주현 기자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아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p>
<p>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백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

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위성된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조상**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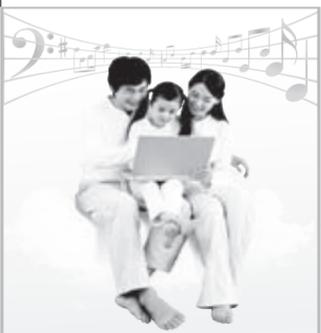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한달광고유료계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제시(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당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롤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T. 메릴랜드 '자이안트' - Sea Food 매대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구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델.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타터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약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광고 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중앙일보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특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특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락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텝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도넛센터빌 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퍼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벤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차안 컴퓨터에서 일하실정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렌트
\$2,300 방3개 화장실 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애난데일 홈디포 옆 싱글홈 마스터룸 1
직장다니는 여자분/유포/\$700
703-350-1986

▶▶애난데일 홈디포 옆 싱글홈
워크아웃 반지하방 1/화1 /세탁기
/부엌/유포 \$1,5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계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계재증자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택트인부역,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나무마루,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인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경.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
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옆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495도
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웍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2층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라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파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파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 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밍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역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보보석(샌더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틱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 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구독: 703-281-9660, 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소독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ger: Did you feel that earthquake yesterday?
로저: 어제 지진 난 거 느꼈지?
Doug: No, what earthquake?
더그: 아니, 무슨 지진?
Roger: There was an earthquake yesterday morning . You didn't feel it?
로저: 어제 아침에 지진 났어. 못 느꼈었어?
Doug: No I must have slept through it.
더그: 응 자느라고 전혀 몰랐어.
Roger: It shook me to my bones. It was scary.

로저: 난 무지 겁났는데. 무섭더라.
Doug: Really?
더그: 정말?
Roger: You are a sound sleeper Doug. You don't hear or feel anything.
로저: 더그, 넌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겠다. 아무 소리도 못듣고 아무 것도 못느끼니.
Doug: That's right. Was there any damage to your house?
더그: 맞아. 집에 피해 입은 거 있어?

to sleep through (something); 잠에 빠져 (무엇을) 까맣게 모른다

(Roger is talking to his friend Doug on the telephone ...)

(로저가 친구 더그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Roger: A few pictures fell off the walls but that was all.
로저: 벽에 걸린 그림 몇 개 떨어진 게 다야.
Doug: Well that's good. Hey why don't you come over and we'll play some poker tonight?
더그: 그 정도면 괜찮네.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포커나 좀 치는 게 어때.

기억할만한 표현

▶ fit shook (one) to (one's) bones: (누가) 크게 놀랐다.
"That movie scared her to her bones. She never

wants to see it again."(그녀는 영화가 너무 무서웠대요 . 두 번 다시 안본다고 합니다.)
▶ (one) is a sound sleeper: (누가) 깊이 잠들어 쉽게 깨지 않다.
"My son is a sound sleeper. Nothing wakes him up." (우리 아들은 잠을 깊게 잡니다. 업어가도 모릅니다.)
▶ come over: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다.
"Come over and we'll watch some old movie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옛날 영화나 좀 같이 봅시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 열매를 묶은 후 갈거나 빵은 가루를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내려 마시는 커피 (3) 아니꼬울 정도로 인색한 사람. 계에서 이것저것 만져만 보고 집으로 돌아와 생선 만진 손을 솥에 씻어 국을 끓이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우두머리 (7)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8) 태어난 날. 왕의 ~은 5월 15일이죠 (9)무로 담근 일본식 찐지. 일본의 다쿠양이라는 스님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죠 (10)귀와 빵의 중간 정도 부분. ~를 올려볼이다 (13)몸 안의 세포가 과잉으로 발육한 종기나 혹. 악성 ~ (15)무력에 의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 전쟁터 (16)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며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 두부를 만들 때 쓴다 (21)몹시 여이를 갈며 속을 썩임 (23)빠가 없는 벌레. 죽대나 기개가 없이 무른 사람 (25)단맛을 위주로 하는 기호식품 (27)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 (28)한데에서 자는 잠 (29)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30)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공포함

세로열쇠

(1)원래의 부대로 되돌아감 (2)콩 제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가공품. 가족들은 교도소 앞에서 ~를 들고 출소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3)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4)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젊어서 ~은 사서도 한다 (5)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7)반진고리에 바늘, 실, 가위, 자, 형질 등과 함께 이것도 있지요 (9)단군이 즉위한 해인 서력 기원전 2333년을 원년(元年)으로 하죠 (11)쌀을 파는 가게 (12)풀무를 차려 놓고 칼, 호미, 낫, 괭이 등 온갖 농기구를 만듭니다 (14)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17)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 (18)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 (20)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음. 주모는 우리가 생보도 없는 ~이라는 걸 알면 아마 박대를 할 것이다 (21)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 (22)귀이 잘 생각함. □사□□ (24)빠를 채우고 있는 물질. 조직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원. ~ 당원 (26)천체가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 (28)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서울 종로에 가면 115년 된 ~가 있다

스도쿠

	8	7		2		6		
	1					7	3	
3	5						2	9
		4	7			8		6
	9				4		7	
6					5			
2			1	3		5		7
	6		8		2			
5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9	2	7	4	6	8	3	5
3	6	4	2	5	8	1	9	7
7	8	5	9	3	1	6	4	2
4	1	6	5	8	2	3	7	9
2	7	3	4	1	9	5	6	8
9	5	8	3	6	7	4	2	1
6	2	1	8	7	4	9	5	3
8	3	7	6	9	5	2	1	4
5	4	9	1	2	3	7	8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알짜 세택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샌렌트,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델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행사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휴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